

# 현금배당 늘리면 세금 감면…주말부부도 월세 공제

적자 기업도 분리과세 혜택  
반도체·선박 '전략기술' 확대  
'무늬만 본사 이전' 기업 방지  
수도권 인원 비율 50→40%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현금배당으로 한정돼 적용된다. 주식배당은 제외된다. 반도체·선박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넓혀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복귀 '유련기업'에 세액감면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일 이전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현금 배당에 혜택 집중…대기업 배당·투자 등 유도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14~30%)를 적용하는 세제 개편 사항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됐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 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대여(대차거래)하고 받는 배당상당액은 포함된다.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고 범위내 혜택을 받는 투자전문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 2025 세제 개편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 분리과세(14~30%) 적용  
배당소득 현금배당 한정, 주식배당 제외(대차거래하고 받는 배당상당액 포함)  
적용대상 펀드,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 제외.  
당기순이익 0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경우 허용  
배당상향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시 별도재무제표 적용

### 청년미래적금 세부내용 규정

2026년 6월 출시 예정

일정소득 이하 또는 소상공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3년 이상 기준 이자소득 비과세 (연간 납입한도 600만 원)  
가입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최대 40세)  
소상공인 기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중도해지사유 기입자의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기입자의 퇴직·질병발생 등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 제외)

△연합뉴스 자료: 재정경제부

## 2025 세제 개편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②

### 지방부동산 경기활성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 지역에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  
·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 적용되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기액기준을  
기준기준 4억 원 이하로 규정  
·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 부과시 주택수에서 제외  
(인구감소지역 주택 9억 원 이하, 그 지역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준공후미분양 주택 지원  
· 1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 적용 미분양주택 기액기준 6억→7억 원으로 상향

### 부부 공동명의 주택 납세의무자 선택

기준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 동일 지분율일 경우 1명 선택  
개정 지분율 관계 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  
※ 납세의무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 적용

·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상속주택, 대체주택, 지방자거주택) 취득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연합뉴스 자료: 재정경제부

본시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세액 추정 기준도 손질한다.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은 기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무늬만 지방이전' 기업을 줄이고 지방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련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전이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먼저 신·증설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국내 복귀 후 4년 내 국외 사업장 축소를 원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은 짐액 추정된다.

△하이볼 15% 씨진다…청년미래적금, 40세까지 가입

하이볼에 해당하는 낮은 도수 혼성주류에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0%의 주세 감면이 신설됐다.

시행령에 위임된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다.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제외되며, 감면 한도는 연간 반출(수입)량 400kg까지다.

다만 기업마다 생산량이 달라 연간 감면 한도를 고려할 때 제품 가격 인하 효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미래적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올해 6월께 출시될 예정으로, 작년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병역 이행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출산이 중도 해지 사유에 서 베꼈다.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주말부부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해야 하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등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연합뉴스



강기 광주시장이 지난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공지능 전문기업 9개사와 광주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 광주시, '실증 중심' AI산업 생태계 확장

### 제조·헬스케어 AI기업 9곳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실증 중심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제조·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AI) 전문기업 9개사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가 353~361번째로 유치

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온 광주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시는 그동안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유틀리와 인재 양성을 병행하며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대규모

국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연구 중심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실증 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기업은 △㈜노바코스 △㈜디에스 △㈜비전파트너스 △㈜엔씨에이아이 △㈜오마주에이아이 △㈜유체프로젝트 △㈜테스티파이 △㈜테이아 △㈜티오에이 등 9곳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광주를 거점으로 기술 실증과 협력을 추진하고, 산업 현장 적용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코스피 시총 4000조 돌파…11거래일 상승 랠리

### 역대 3번째…'4840.74' 또 최고치

코스피 '불장'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000조를 돌파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장 마감 시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4004조 87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15일 종가 기준 3000조

원을 넘어선 지 약 3달 만의 성과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11p(0.48%) 오른 4820.66으로 출발해 4800대를 넘어섰다.

지수는 한때 4855.61까지 오르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43.19p(0.90%) 오른 4840.74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11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는 2019년 9월 4~24일(13거래일), 2006년 3월 23일~4월 7

일(12거래일) 다음으로 가장 긴 연속 상승일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45억 원, 3388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9386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는 9053억 원 매도 우위였다.

국내 증시는 최근 주춤했던 미국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기운을 달렸다.

코스닥 지수는 0.33p(0.03%) 내린 950.83으로 출발해 전장보다 3.43p(0.36%) 오른 954.59에 장을 끝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 반도체·자동차 선전에 작년 무역흑자 140억 돌파

### 전년보다 6.51% 늘어…광주 87억 400만 달러

지난해 광주지역 수출이 반도체·자동차 선전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반면, 전남은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감소해 흑수가 엇갈렸다.

18일 광주부세관이 발표한 '12월 광주·전남 지역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누계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590억 2200만 달러, 수입은 6.1% 감소한 449억 4100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6.51% 늘어난 140억 8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은 수출 175억 18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155억 200만 달러) 대비 12.6% 증가했다. 수입액은 87억 3300만 달러로 전년(74억 500만 달러) 대비 27.6% 증가한 15억 2500만 달러. 수입은 14.3% 감소한 8억 13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 12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38.4%)이 2개월 연속, 중국(17.8%)은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수출장비(18.8%), 반도체(61.9%), 기계류와 정밀기기(52.4%), 가전제품(12.2%) 등은 증가한 반면, 고무타이어 및 튜브(-34.6%) 등은 감소했다.

12월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한 40억 600만 달러. 수입은 0.2% 감소한 31억 25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 8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은 석유제품(9.1%), 수송장비(46.6%) 등은 증가했고 화공품(-6.1%), 철강제품(-6.7%), 기계류와 정밀기기(-8.2%) 등은 감소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스타필드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순항

### 신세계프라퍼티, 토지비 4차 중도금 77억 납부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등이 들어서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도금 납부와 함께 조성계획(변경) 수립, 실시설계 추진 등 주요 절차를 계획대로 이행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의 민간개발자인 신세계프라퍼티가 협약에 따라 토지비 4차 중도금 77억 4000만 원을 광주도시공사에 납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납부로 신세계프라퍼티는 전체 토지비 860억 원 가운데 395억 6000만 원을 납부해 약 46%

의 납부를 완료했다.

광주도시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2023년 12월 22일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의 세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세계프라퍼티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원지 부지에 대한 세부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광단지의 핵심 시설이자 지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비롯해 콘도와 각종 부대시설은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 고품격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는 관광 수요에 맞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어등산관광단지는 호남권을 아우르는 서남권 관광거점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찾는 명품 관광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관광·휴양·문화·레저·쇼핑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스테이케이션 명소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세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긴밀히 협의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규 기자 photo25@gwangnam.co.kr